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살아나고 있는 잠재거대시장 〈러시아〉

2004. 3. 9(화)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살아나고 있는 잠재거대시장 〈러시아〉

2004. 3. 9(화) 16:00 - 18:00

KOTRA 아카데미 강의실

연사 : KOTRA 북한팀 윤정혁 과장
(모스크바 무역관 근무)

I. 왜 러시아를 주목하는가?

□ 2000년대 들어 고도 성장기 진입(연평균 6% 후반대 성장률)

□ 골드만 삭스의 BRICs 전망

- 2003년 10월 골드만 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이 2050년이면 G6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함

<골드만삭스의 연도별 주요국 GDP 예측치>

(단위 : 십억달러)

연도	러시아	독일	이태리
2000	391	1,875	1,078
2005	534	2,011	1,236
2010	847	2,212	1,337
2015	1,232	2,386	1,447
2020	1,741	2,524	1,553
2025	2,264	2,604	1,625
2030	2,980	2,697	1,671
2035	3,734	2,903	1,708
2040	4,467	3,147	1,788
2045	5,156	3,381	1,912
2050	5,870	3,603	2,061

- 러시아의 GDP규모는 2018년 이태리, 2024년 프랑스, 2027년 영국, 2028년 독일을 능가할 것이며, 1인당 GDP도 2038년 이태리, 2050년 독일을 능가할 것임

<골드만삭스의 러시아 경제 예측치>

	2000~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GDP(십억불)	391~847	917~1,741	1,829~2,980	3,131~4,467	4,613~5,870
1인당 GDP(불)	2,675~5,948	6,453~12,527	13,212~22,427	23,674~35,314	36,684~49,646
실질GDP성장율 (연간, %)	10.0~4.1	4.0~3.3	3.3~3.4	3.3~2.4	2.3~2.1

II. 러시아의 현재 동향

1. 정치/사회 동향

□ 푸틴 대통령은 전임 엘친 대통령의 퇴임 및 후계자 지명으로 2000년 5월 취임하였으나, 엘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완전히 성공, 정치적 안정 체제 구축

○ 친정체제 구축 성공

- 고향인 페테르부르크와 KGB출신의 개혁적 실무진 구성
- 엘친계열의 인사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점차 퇴출
- 전국을 7개의 연방관구로 개편, 각 관구에 대통령 특별 대표 임명, 파견 → 지방에 대한 통제력 보유
- 엘친 대통령은 올리가르흐의 자금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이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으나, 푸틴은 이들의 행동반경을 경제영역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철저히 응징(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최근 YUKOS의 호도르코프스키 등) → 재벌의 정치간여 여지 차단

○ 외교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음

- 실리형 외교 추구

○ 경제개발 우선 주의 : 경제 개발 대통령(박정희와 비교되기도)

□ 3. 14일 예정된 대선에서도 재집권 확실히 됨

- 2003년 12월 실시된 하원선거에서 친 크레믈린계 세력이 다수의 석 차지
- 푸틴의 지지도는 70% 이상
- 공산당 등 야권도 사실상 대선 포기, 이렇다할 경쟁자도 없는 상황임.

☐ 체첸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사회 불안 요소로 여전히 남아있음

- 체첸에 대한 무장진압에도 불구하고 2002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극장 점거 사태가 일어나고, 간헐적으로 폭탄테러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

2. 경제 산업 동향

○ 면적 : 1,707.5만km ²
○ 인구 : 145.3백만명
○ GDP : 4,663억 달러(2003년)
○ 1인당 GDP : 약 3,100달러(2003년)
○ 산업구조 : 농업 5.8%, 서비스업 59.7%, 광공업 33.8%(2002년)

가. 국내 경제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경제성장율	10.0	5.1	4.7	7.3
물가상승율	20.2	18.6	15.1	12.0
고정투자 증가율	17.4	10.0	2.61	12.5
재정수지/GDP	1.4	3.0	1.3	1.7
공업생산증가율	11.9	4.9	3.7	7.0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12.0	8.7	9.9	14.6

1) 경제 성장

- ☐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움까지 선언
- ☐ 1999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경제 성장세 지속 : 연평균 6% 후반대의 성장율

○ 최초 경제성장의 동인

- 유가상승(국제 유가는 1999년부터 고유가 기조 유지)
-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효과
 - 수출산업 활성화 : 국산품의 경쟁력 향상
 - 자국 산업 활성화와 수입대체 효과

○ 이후 경제성장의 동인

- 고유가 지속
- 고정자산 투자 증가
- 정치적 안정과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제도 개혁
 - 세제 개혁 : 개인소득세율 단일화(13%), 수입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하, 판매세 폐지
 - 토지기본법 제정
 - 외환관리 : 외환강제 매각 비율 인하, 수입예치금 비율 인하
- 경제성장 누적효과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증가, 중산층 출현
 - 과거 극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극빈층 구성으로 소비진작이 어려웠으나, 중산층이 점차 두꺼워 지면서 소비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

□ 성장효과가 누적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개선

○ 미국 및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 획득 : 2002년

○ 국가신용등급 투자적격 등급 획득(무디스, 2003년 10월)

2) 물가상승률

□ 1999년중 물가상승률이 85.7%에 이를 만큼 심각하였으나 급속히 안정되고 있음.

□ 2003년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정했던 12%로 성공적인 해로 평가됨

3) 재정수지

☐ 2000년대들어 흑자기조 지속 유지

4) 기타

☐ 증가 : 2003년 한 해 동안 39% 증가

나. 국제 경제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 십억불, %)

구분		2001	2002	2003
수출	액	101.9	107.3	135.4
	증가율	-3.0	5.3	26.2
수입	액	53.8	61.0	75.4
	증가율	19.8	13.4	23.7
외국인직접투자		2.5	3.5	6.8
외환보유고		32.5	44.1	77.8

1)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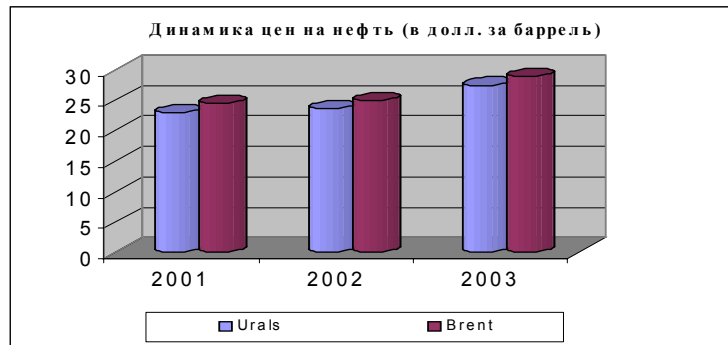
☐ 수출은 GDP의 35%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

☐ 2003년 수출은 26.2% 증가한 1,3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역시 23.7%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며 75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수출수입 공히 사상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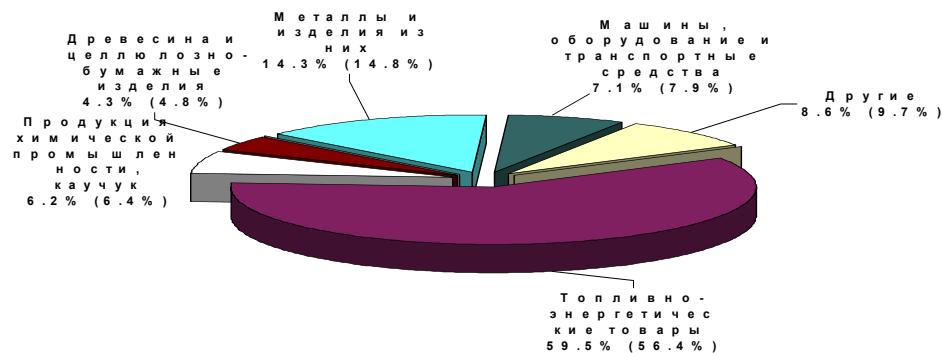
○ 수출증가 사유 : 고유가(석유 및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60%)

○ 수입증가사유 : 국내 수요 증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연도별 평균 유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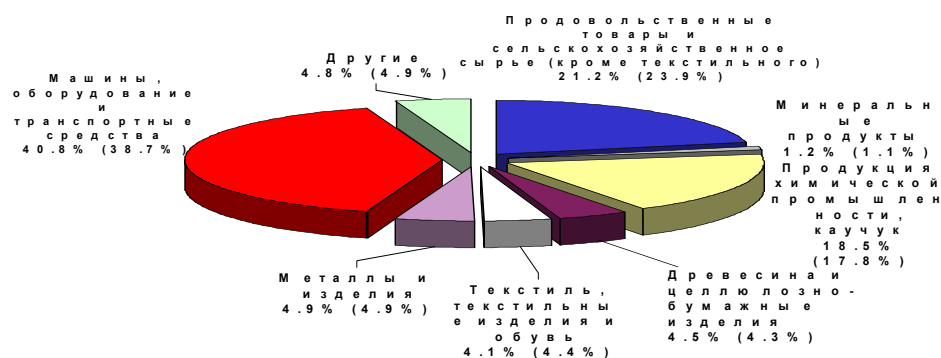


<러시아의 수출상품 구조>



- 연료에너지 : 59.5%(2002년 56.4%)
- 메탈 제품 : 14.3%(2002년 14.8%)
- 기계, 설비, 운송기기 : 7.1%(2002년 7.9%)
- 화학제품 : 6.2%(2002년 6.4%)
- 원목 및 펄프 등 : 4.3%(2002년 4.8%)

<러시아의 수입상품 구조>



- 기계/설비, 수송기기 : 40.8%(2002년 38.7%)
- 식료품 및 농업원료 : 21.2%(2002년 23.9%)
- 화학제품 : 18.5%(2002년 17.8%)
- 원목 및 펄프 등 : 4.5%(2002년 4.3%)
- 메탈제품 : 4.9%(2002년 4.9%)
- 섬유 및 섬유제품 : 4.1%(2002년 4.4%)

2)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 2003년 FDI유입규모는 68억 달러로 대폭 증가

□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를 계속 보일 것이 확실하지만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투자유치 정책 필요

□ 그러나, 이는 러시아 투자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시장규모 확대와 내수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임

○ 러시아의 FDI 유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 : 주요 투자국들의 핵심 관심사항인 원유개발 분야에서 생산물분배협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중 하나

○ EBRD에 따르면 1994-2003년간 러시아의 1인당 순 FDI 유입은 52불이나, 구 소련 일원중 산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938불, 625불에 달하였음

□ 투자부문도 소매유통업, 식품, 음식료 서비스업, 석유 및 가스, 종이 및 펄프 등에만 집중되고 있음

○ 소매 : 스웨덴의 IKEA, 독일의 Metro, 프랑스의 Auchan, 터키의 Ramstore, 핀란드인 Stokmann 등이 활발

○ 식품업 : Heineken, Scottish & Newcastle, Danone, Campina, Nesle 등

- 대러 주요국 : 독일, 미국, 사이프러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러 주요 투자국이며, 이들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 누적 규모의 71.0% 를 차지(이중 직접투자 부분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축적 규모의 71.8%를 차지)
- 주요 투자국중 사이프러스, 버진 아일랜드 등은 실제로 대부분 러시아 자금임 : 러시아에서 유출된 자금이 이들 국가에서 세탁을 거쳐 외국인 투자로 위장, 반입되고 있음
- 실제로 이들 나라에 paper company를 둔 업체가 상당히 많음

3) 외채상환

- 수출호조와 이에 따른 외환 보유고 증가, 재정흑자로 인해 질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음. 해외차입은 가급적 자제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 상환예정인 IMF 채무를 2006년까지 조기상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외 채무 관리에 자신감 표명
- 외환보유고 : 880억 달러(2. 20 기준, 1999년 4월 107억 달러)
 - 전체 대외 채무 1,191억 달러의 74%에 달해
 - 2003년중 외채 상환실적 164억달러, 2004~2005년중 대외채무 상환부담은 189억달러로 대폭 감소

다. 러시아의 소비력 :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음

- 러시아의 1인당 GDP는 2003년 기준 3,100불에 불과
 - PPP기준으로 환산시 : 2002년 1인당 GDP는 9,700불로 평가(미 CIA)
 - 특히 모스크바시민의 경제력은 러시아 전체 평균의 약 3배로 평가

- 세계적인 가구 매장인 IKEA의 경우 모스크바시민의 구매력을 스웨덴수준으로 평가(모스크바시 외곽 소재 IKEA 2개 매장이 전세계 IKEA 매장 매출의 10% 차지)

□ 빈부격차는 여전해

- 200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였으며 하위 10%가 5.9% 차지
- 지역별 수입차이(US\$ 1 = 약 29루블)
 - 모스크바시민 월 평균 16,300루블, 브랏스 자치구 월 1,410루블
 - 모스크바 시민의 실제적 수입은 공식 통계의 1.5~2배(부업 및 수입 미신고분 등 포함시)
 - 모스크바에 이어 소득이 높은 지방은 야말로 네네츠구, 한티 만시 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 등. 페테르부르크는 16위에 불과
 - ※ 모스크바의 1인당 소비지출은 15,600루블(러시아 평균 소득의 80%를 소비재 구입에 지출)

<러시아인의 소득분포(공식 수치)>

(단위 : %)

1인당 월평균 수입(루블)	2001년	2002년
2,000미만	41.6	29.6
2,000~4,000	34.8	36.2
4,000초과	23.2	34.2

<모스크바시민의 소득분포(공식 수치)>

(단위 : %)

1인당 월평균 수입(루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000미만	13.9	9.0	6.0	4.1	2.9	2.4
1,000 ~ 2,500	29.1	24.8	20.5	17.3	14.8	13.3
2,500 ~ 5,000	26.4	27.1	26.6	25.5	24.4	23.7
5,000 ~ 10,000	18.9	22.5	25.2	26.9	28.2	28.9
10,000 ~ 30,000	10.6	14.7	18.8	22.4	25.2	26.8
30,000 ~ 100,000	1.1	1.9	2.9	3.8	4.5	4.9

□ 2003년 러시아 국민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0.2%와 23.8% 증가, 전년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14.6%(2002년도는 8.9%)

□ 소득 증가 사유

- 유가급등으로 인한 자원 수출관련 기업들의 수익 증가 -> 종업원들의 소득증가, 개인들의 소비확대(특히 대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모스크바와 대형 유전이 위치한 서시베리아 일부 지역)
- 전기, 수도, 전화세 등 공공요금이 저렴하고 주택 보유율도 이미 상당히 높음. -> 소득 증가분을 순전히 소비에 쓸 수 있는 여건 조성
- 민간 저축 미약 : 미래에 대비한 저축이란 개념이 거의 없음.
- 세원 양성화 : 2001년부터 개인소득세율을 13% 단일화. 이후 소득을 이중으로 신고하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락되는 소득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추정

□ 중산층 인구 지속 확대

- 러시아 전체에서 약 1,200 ~ 1,300만 가구
- 모스크바 인구의 약 40~50%

-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향후 민간경제 활성화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중산층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1/4을 식료품 구입, 1/10을 의복 구입에 사용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시장확대 -> 내구소비재 판매 증가

- Citi Bank를 필두로 의욕적 진출
- 자동차 할부판매 등 신규 제도 도입

☐ 소비패턴 변화

- 가격중시에서 품질 중시 : 식용유의 경우 고가의 해바라기유 수요는 증가, 저가의 유채유, 대두유 소비는 감소
- 재래시장 감소, 대형 소매점 급증 : 대형 소매점 숫자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
 - 서구형 소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 4.5%(폴란드 30, 체코 44%, 헝가리 61%)
 - 러시아 자체 대형 소매점(7th continent, Perekryostok 등) 증가와 함께 외국계 소매점은 향후 계속 급증할 듯
 - ※ 대형 소매점은 점차 대형화, 고급화 추세. 점포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업종의 업체 입주

라. 시장환경 및 특성

☐ 수입시장구조

- 매력적인 수입시장
 - 체제전환 이후 자체 제조업 기반 붕괴로 소비재의 50% 이상을 수입산으로 충당
 - 최근 5년 연속의 성장호조로 내수증가
 - 수입대체 산업육성정책으로 기계, 설비, 중소플랜트 등 자본재 수요의 증가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
 - 체제전환 10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과도기
 -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 미흡
 - WTO 가입추진에 따라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진행中
 - 복잡한 법체계 및 법령의 대폭적인 개혁 추진
(단, 제도화와 집행간의 차이 존재)
 - 운송, 통신, 금융 등 주요 기간 서비스 미비

□ 소비자 특성

- 소비의 이중구조
 - 소수의 부유층(인구의 10% 수준)과 다수의 빈곤층 (40% 수준)
 - 부유층은 고가의 서구 최고급 브랜드 선호, 빈곤층은 자국산 및 저가의 수입제품 구매
 - 그러나, 2001년 이후 소위 '중산층'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
- 지역별 경제, 소득, 소비 격차가 큰 시장
 - 모스크바 진출이 가장 중요
- 구매결정 요인
 - 가격요인 중시에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음
 - 외국 유명 브랜드가 몰려들고,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

□ 상거래 관습

- 독특한 대금결제 관행
 - 최근 대형 수입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영세업체로서 소량주문 및 단기 딜리버리 선호 (현금 유동성 중요)
 - 일부 현금선불과 외상거래가 결합된 형태
- 금융제도의 미비 및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은행이용 기피 (L/C 거래 기피 경향, 무자료 거래 선호)

- 2001년부터 소득세를 13%로 하향 단일세율화 하는 등 조세 부담율을 낮춰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금융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탈세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인맥이 중요한 상거래 관행

- 서구적 합리주의 보다는 인정과 친분관계에 의한 직접 對面 비즈니스 선호 관행
- 언어소통 능력과 러시아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비즈니스 추진에 중요한 역할

□ 유통구조의 특징

○ 유통산업의 미발달

- 국가배급 시스템의 붕괴후 유통시스템 혼란. 최근에는 IKEA, METRO, Auchan 등 외국계 유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나, 아직까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며, 이나마 모스크바에만 집중되고 있음.
- 제조업체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미흡.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경제 (Shadow Economy) 비대

- 지하경제가 GDP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국민의 약 10%가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부유층으로 부상
-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은행에 예치한 외화액이 수백억불 규모로 추정

Ⅲ. 향후 전망

1. 정치/사회

☐ 2008년까지 푸틴의 제2기 집권 시대 지속 확실히

- 금년 3월 14일 대선에서 재집권은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음
- 푸틴은 2000년 집권후 2001년까지 활발한 개혁입법활동을 펴왔으며, 2003년은 다소 제도 개혁 속도가 줄어들었음 → 2기 집권 초반 WTO 가입을 목표로 한 과감한 제도 개혁이 기대됨.
 - 대형 공기업 처리
 - 시장 개방 문제 등
- 최근의 총리교체는 친정체제 구축의 일환임
 - 카시야노프 전임 총리는 엘친계열로 석유재벌들과 친분관계 유지, 개혁추진 반대
 - 신임 프라드코프 총리는 지지기반이 약해 대통령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듯

☐ 푸틴 집권시 전체적인 정치 및 사회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 확실하지만, 체첸 분리독립 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사회안정의 변수임.

☐ '강한 러시아', '법질서 확립'을 모토로 하여 정치적 권위주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푸틴 정권의 특징

- 경제적 이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노선 구사
 -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 실리 챙김
 - 유럽, 중국 등과 적극적으로 외교관계 개선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4개국을 묶어 단일 경제지역 출범 계획(CIS 경제의 핵심 4개국)

2. 경제전망 : 푸틴 집권 2기에도 국제유가 상승, 루블화의 가치하락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의 효과가 지속될 것인가?

가. 긍정적인 면

1) 풍부한 인력과 천연자원

□ 인구 : 1.45억, 고학력 비중이 높으며, 과학기술 수준 매우 높음

○ 경기 호조에 따라 국외로 탈출하였던 고급 과학인력이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국,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20%를 보유한 부동의 1위(유럽 천연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에서 공급)

○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이 유럽쪽으로 편향되고 있어 미주 및 아시아쪽으로 수출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됨

○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석유산업이 러시아 경제의 엔진이 될 수밖에 없음(대안 부재)

2)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 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고정자본투자 증가, 중산층 소득증가 → 소비수요 확대

□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실업률 저하 등 고용환경 개선 → 개인 소비지출 크게 증가

- 특히 모스크바의 소비력은 이미 서유럽수준이며 지방으로 그 추세가 파급될 듯
- 개인소비의 중심은 중산층이며, 중산층 인구 지속 확대중. 민간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소비붐은 지속될 것이다”

3) WTO가입 추진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 WTO 가입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가입 추진중
- WTO 가입을 구조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이용
 - 에너지 이중가격 제도 해소, 농업보조금 철폐, 시장개방문제(금융, 보험, 통신)
- WTO 가입 관련 주요 쟁점 사항
 - 상품시장 개방
 - 러시아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WTO 가입시 가장 높은 수입관세를 유지. 현재 80%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합의가 완료된 상태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제품은 농산물, 의약품, 가구, 민간 항공기, 자동차 등임.
 -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 -에너지 가격, 농업보호- 등을 위해 “상품 시장개방” 문제는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 농업 보조금 지급
 - 러시아측은 WTO가입시 일정기간 특별 농업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를 현행 136억달러에서 90억~10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의 제안은 Cairns 그룹 회원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15억~20억달러안과는 차이가 여전히 큼.

○ 서비스시장 개방

<금융>

- 향후 가입협상에서 러시아측이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금융인들도 법적인 제한이 외국 자본의 침투를 막지 못할 것으로 평가

<보험>

- 러시아 보험업체들은 재원이나 시스템이 외국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협상단은 최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통신>

- 러시아측은 현재 장거리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를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Rostelecom” 에게 5년간의 독점권 보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 유예기간 문제외에도 현재 국제전화 수익이 시외전화 이용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도 쟁점중 하나.

○ 구조적인 문제들

- 러시아 법조항중 WTO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음. 특히 관세 규정 및 강제인증 제도 등 비관세장벽이 대표적. 실무그룹 참여 국가들은 무조건적인 WTO규정과의 합일을 주장.
- WTO규정과 어긋나는 법(수입규제조치 관련 법, 반덤핑 관련 법, 대외교역 관련 정부의 규제 관련 법)은 현재 의회에서 개

정 논의중이며 하원 춘계 회기중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발표. 러시아 의회는 올 봄 회기중 관세법과 외환관리법을 개정할 바 있음.

- 이외에 지적재산권 문제도 특히 미국이 문제 제기. 러시아측은 금년 가을중 민법개정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불법복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기타(소위 "WTO+" 요구사항) : 정부조달 협정, 민간항공협정 체결, 에너지 이중가격제도(특히 EU가 강력히 주장), 수출세 폐지 등
- 이중 에너지 가격, 특히 수출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국내가스가 가격이 쟁점.

□ WTO 가입 관련 향후 전망

- 주요 협상 난항부문은 정부의 보호정책이 없으면 자동차, 섬유 등을 포함하여 적지않은 러시아 국내산업 붕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호혜적인 유예기간 요구에 대해 EU,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강력한 반대, WTO+ 요구사항임. 특히 에너지 이중가격제도는 러시아 협상단은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EU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협상 쟁점외에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도 큰 변수로 작용. 대선이 끝난 직후 2004, 2005년중 빠른 속도의 개혁 추진이 반드시 필요.
- 이 같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WTO가입은 빨라야 2007년이라는 예상이 우세.

나. 부정적인 면

1)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석유, 가스부문이 GDP의 20% 차지
- 양 부문은 총수출과 재정수입, 투자의 약 60% 차지
→ 국제 유가변동에 따라 국내경기 심하게 좌우됨
- '경제안정화 기금' 설치(재원은 수출세로 충당) 등 대책 강구중
- 이라크의 석유 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국제 원유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경제 성장의 엔진이 없음
 - 러시아의 경우 원유수출 원가가 중동에 비해 훨씬 높음. 유가가 배럴당 15달러선일 경우 러시아의 석유수출은 '헛장사'임
- 푸틴정부의 경제관련 제1정책 우선순위는 양호한 국제유가 흐름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을 제조/가공 부문으로 이전, 경제구조를 자원의존형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해야함

2) 취약한 금융

- 금융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 거의 없음
- 기업금융이 활발하지 못함 →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의 어려움

3) 열악한 투자환경

- 관련 법규, 제도 미비, 세제의 불투명성, 인허가 취득시 담당자의 재량이 매우 큼 → 행정의 비효율성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각종 장벽

- 최근 FDI의 증가추세는 국내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것보다는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에 기인. GDP대비 FDI유입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투자의 대대적 확대 필요 : 투자환경 정비 시급

4) 관료주의, 부정부패, 지하경제 등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30-40%
- 연간 약 120억달러에 달하는 자본유출

다. 기타

- 1) 금년도 러시아 경제 전망 : 금년도 유가는 OPEC의 감산,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석유 수요 증대, 이라크 사태 아직 지속 등으로 인해 고유가 지속 될것으로 평가되어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는 금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목표를 5.2%로 책정하였으나, 벌써 5.5%로 상향 조정
- 2) 올리가르히의 경제 영향력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전망됨 : 올리가르히들의 지원 없이는 경제정책 수행 곤란(실제적으로 국내 기업투자의 주체). 특히 올리가르히들은 토지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음
- 3) 고유가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루블화 강세 기조 지속 전망. 향후 러시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감소

- 4) 정부재정에서 국방 및 치안 유지비율이 1/3가량으로 국민생활 수준 향상 및 경제기반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음

IV. 러시아 비즈니스 관련 주요 제도

1. 현지 투자관련 정보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 합작회사(joint-stock society),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society)
 - 법인외에 자회사나 지사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
- 합작회사 : 합작회사는 공개회사(OAO) 및 폐쇄회사(ZAO)로 나뉨. 국방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업체의 지분제한비율 없음. 다만 외국업체의 주식은 연방 주식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등록되지 않은 주식 거래는 무효임.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합작회사 설립보다 그 절차가 간단함.(발행주식 신고 불요 등) 그러나 러시아법상 설립자는 1인이어야 하며,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간주될 수 없어 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본금

○ 최소 법정자본금

법적 형태		최소 법정 자본금	
		외국인 참여 업체	내국인만 참여한 업체
합작회사	OAO	법정 최소월급여의 1천배	법정 최소월급여의 1천배
	ZAO		법정 최소월급여의 1백배
유한책임회사			

※ 2003년 현재 법정 최소 월급여는 약 15달러임.

- 자본금은 루블 및 외화 모두 가능함.
- 법정 최소월급여의 200배가 넘는 자산을 출자할 경우, 감정인의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위해 수입되는 고정자산의 경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지사

- 외국업체 지사의 경우 현지업체로 취급되지 않음. 기본적으로 지사는 외국기업의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다수의 외국기업 지사가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도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러시아 정부는 현지업체와 마찬가지로 절차로 과세를 하게 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등록

- 설립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
 - 국세청 신고
 - 통계코드 수령(통계위원회 신고후)
 - 은행 계좌 개설
 - 합작기업의 경우 연방 주식 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필요
- 기타 : 설립등록 전후에 연금기금, 사회안전기금, 의료보험기금에 신고를 필해야만 함.

□ 외국인투자자와 투자기업의 혜택

- 법률상 우선투자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기업

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러시아정부는 우선 투자프로젝트 리스트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임.

- 외국인투자자가 법정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 수입하는 설비와 부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가 면제됨.

☐ 외국인 투자제한

- 국영기업 및 전략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며, 금융·보험업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있음.
- 사업별로 면허취득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러시아에서 면허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내외국인 불문)>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 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통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Ⅳ, Ⅴ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 용 및 재활용	
전염병 병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계약	
의료기기 제작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관련 기관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a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객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리,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농업부
가축 사육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석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석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 스포츠 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 표준위원회
건축 디자인, I,II 등급의 건물 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 건축위원회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 어업 위원회
뮤추얼 펀드 운용	연방 주식시장 위원회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폭발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청
우주탐사활동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용 제품의 수리	우주청, 교통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의한 정보 도 청 제품을 위한 특정기구의 향후 재판	연방보안국
매를 위한 개발, 제조, 판매 및 인수	연방보안국,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정보 도청을 위한 전자장치의 탐지활동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호	국가 기술 위원회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국가 안전에 속하는 정보의 사용을 수 반한 작업	연방보안국 및 지방사무소, 외국에 소재 한 러시아의 정보기관
국가 기밀 보호 관련 활동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 회, 연방보안국
암호 관련 제품 유통, 암호기기 보수, 유지, 정보 암호화 서비스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암호기기 개발 및 생산	
디지털 서명키 인증서 발급, 디지털 서 명권자의 등록 등	
철,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집, 보유, 판매	관련 기관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	통신부
TV, 라디오 방송(위성방송 포함)	
보세창고 창설	국가 관세위원회
면제점 창설	
자유세관 창고 창설	
세관 지역내 제품 가공	
세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제품 가공	
임시보관 창고 창설	
세관 브로커 활동	
공증업	법무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 이전	경제개발통상부
교육	교육부
원자력을 이용한 분야에서의 활동	원자력 통제 사찰단

2. 현지 세제(稅制) 정보

☐ 징세 주체에 따른 분류 : 러시아 세금은 징세 주체에 따라 연방세(연방 정부),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로 나눌 수 있음.

☐ 연방세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부가가치세(기본세율 2004년 1월 1일부로 18%로 인하, 종전
- 법인 이윤세 : 기본 과세율 24%(단, 조세수입의 6%는 연방, 16%는 광역단체, 2%는 기초단체 예산수입으로 편입)
- 통합사회세(피고용자의 월평균 급여의 35.6%) :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휘발유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13%)
- 관세, 수출세 등

☐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기업 재산세(최대 2%)
- 교통세
- 삼림수익세
- 판매세(5%,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 등

☐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광고세(최대 광고비의 5%)
- 지방정부 비용 커버를 위한 특별세(경찰, 교육 등)
- 개인 재산세 등

※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세무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3. 노동법(2002년 개정) 주요 내용

□ 러시아 노동법중 주요 특이사항

○ 노동 계약 의무

- 단기 노동(Term Labor)일 경우도 정식 노동 계약체결 의무
 - 단기노동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에 명시
 - 단기 노동 계약체결시 계약서상 정식근무계약체결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단기 노동계약 체결은 5년이하에 한함)
- ※ 단기 노동계약체결시도 고용주세(기본세율 35.6%) 지불해야함

○ 노동 계약 체결시 의무 기재사항

- 노동 장소(근무 부서도 함께 기재)
- 노동 개시일(계약서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이 노동개시일이며, 실제 노동 개시후 3일 이내에 계약서 체결도 가능함)
- 직위, 담당 업무 기능
- 피고용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자의 근무조건과 상여금
- 휴가일수 및 휴가 신청 절차

○ 수습 기간(probation period)은 최장 3개월. 단, 기업체 최고경영자, 회계 책임자, 자회사, 지사, 부속기구 대표에 한해 6개월까지 수습기간 연장 가능 : 수습기간 이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치 않을 경우 노동계약 해지 가능. 단, 해고 3일전까지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약 해고 노동자가 고용주의 결정에 불만을 품을시 법원에 제소가능.(일반적인 피고용자 해고 시에도 해고 3일전까지 서면통보 의무)

○ 서면 공지 의무사항

- 고용주가 노동 계약조항 변경을 원할 시(2개월전 서면통보)
- 고용 취소 사유

- 피고용자의 봉급 관련 변경 사항
- 노동 계약 취소
- 제3자로부터의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취득 기도
- 피고용자 부서 변경사항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 피고용자의 출장 파견

※ 이상은 서면통보후 반드시 피고용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휴가

-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간 28일임(토, 일요일 포함)
- 최대 휴가일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후 6개월후 휴가가 가능함.
-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 실시 휴가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함. (잔여 휴가기간은 14일 이하 휴가실시도 무방)

<미사용 휴가의 차년이월>

- ◇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
- ◇ 단, 업체측(고용주측) 사정에 의한 휴가 미사용 경우에 한함.(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미사용은 이월 불가)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성>

- ◇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며, 최대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함.
- ◇ 28일 초과 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가능.

□ 보수

- 최소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 유지 임금(living wage) 이상이어야 함(현재 최저 생활 임금은 월 2,500루블임).
- 급여체불시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 이자율의 1/30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신규조항)

- 15일 이상 임금 체불시 피고용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때까지 대고용주 서면통보 후 업무를 중지 할 권리가 있음(신규조항)
- 고용주의 잘못으로 피고용주가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으로 실질 평균 급여의 2/3를 지급함
- 급여의 비화폐 지급(현물지급)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임.

□ 이중 근무 및 시간외 근무

- 시간외 근무는 합법이나,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은 금전 지불이나 휴가로 대체 가능함.
- 이중 근무(job combination)는 양자간 합의 필요(신규조항)
- ※ 이중 근무(job combination) : 2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것.
- 불규칙 노동시간 근무직 리스트는 단체 협약, 현지법인 고용규정에 명문화되어있어야 함.
- 노동 강요(Forced Work)는 금지되며, 노동강요시 정부가 규정한 최소 노동수당(MROT)의 100배(현재기준 : 10,000루블)를 납부해야 함.

V. 우리의 진출 방안

1.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연도별 한-러간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118,084	-	74,830	-	192,914	-
1993	601,171	409.1	974,821	1,202.7	1,575,992	716.9
1994	961,911	60.0	1,229,652	26.1	2,191,263	39.0
1995	1,415,881	47.2	1,892,880	53.9	3,308,761	51.0
1996	1,967,534	39.0	1,810,266	-4.4	3,777,800	14.2
1997	1,767,932	-10.1	1,534,783	-15.2	3,302,715	-12.6
1998	1,113,846	-37.0	998,579	-34.9	2,112,425	-36.0
1999	637,052	-42.8	1,590,469	59.3	2,227,521	5.4
2000	788,127	23.7	2,058,265	29.4	2,846,392	27.8
2001	938,161	19.0	1,929,476	-6.3	2,867,637	0.7
2002	1,065,875	13.6	2,217,604	14.9	3,283,479	14.5
2003	1,659,119	55.7	2,521,780	13.7	4,180,899	27.3

(자료원 : KOTIS)

※ 2004년 1월 대러수출은 139,837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
(수입은 216,371천불로 2.1% 감소)

□ 1980년대말부터 양국간 교역이 시작된 이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7년과 1998년 양국을 휩쓴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

□ 이후 한국이 위기를 탈출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교역규모 급신장세. 2003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4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한국의 대러 수출 규모는 20억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규모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음.

- 핀란드, 두바이 등을 통한 우회수출이 많음.
-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양사는 2003년 연간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규모가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러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US\$천, %)

품 목 명		2002		200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No.	총 계	1,065,875	13.6	1,659,119	55.7
1	수송기계	117,434	63.9	360,308	206.8
2	석유화학제품	242,430	24.4	331,568	36.8
3	산업용 전자제품	102,098	24.6	197,471	93.4
4	농산물	111,780	21.1	122,278	9.4
5	직물	91,204	-0.6	96,292	5.6
6	가정용 전자제품	69,810	-3.0	88,113	26.2
7	섬유제품	51,207	-10.2	50,436	-1.5
8	산업기계	37,491	40.9	48,283	28.8
9	플라스틱제품	29,848	24.0	44,682	49.7
10	정밀화학제품	24,335	13.8	43,115	77.2
11	전자부품	26,862	27.9	37,238	38.6
12	축산물	21,982	-39.3	33,584	52.8
13	철강제품	8,084	-5.9	26,106	222.9
14	기초산업기계	13,399	38.5	24,703	84.4
15	정밀기계	17,625	3.0	21,112	19.8
16	광물성 연료	12,349	-46.7	19,848	60.7
17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6,858	25.1	18,771	11.3
18	섬유원료	5,619	168.0	15,706	179.5
19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6,103	20.5	13,752	125.3
20	비철금속 제품	4,249	21.3	7,725	81.8

(품목분류 : MTI 2단위)

(자료원 : KOTIS)

대리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US\$천, %)

품 목 명(HS Code)		2002		200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No.	총 계	1,065,875	13.6	1,659,119	55.7
1	PET류(3907)	200,314	21.5	253,874	26.7
2	승용차(8703)	64,664	39.3	191,062	195.5
3	무선전화 기기(8525)	56,670	145.4	143,090	152.5
4	선박류(8901)	609	-9.6	97,647	15,941.0
5	스티렌 중합체(3903)	32,791	42.5	53,320	62.6
6	파스타 류(1902)	45,316	23.7	46,200	2.0
7	자동차 부품(8708)	11,618	14.4	26,740	130.2
8	냉장/냉동기기(8418)	18,041	4.4	20,480	13.5
9	메리야스 편물(6004)	13,459	-	20,130	49.6
10	기타 메리야스편물(6006)	27,638	-	20,040	-27.5
11	소스류(2103)	15,107	21.3	19,828	31.3
12	합성장섬유사직물(5407)	18,429	-4.0	19,372	5.1
13	세탁기(8450)	8,561	74.7	19,148	123.7
14	무선기기 부품(8529)	13,644	-5.5	18,999	39.3
15	석유 조제품(2710)	11,777	-48.2	18,890	60.4
16	수송용 자동차(8702)	12,627	159.3	18,693	48.0
17	열전자관,광전관(8540)	9,844	21.9	18,551	88.5
18	유선전화기(8517)	17,642	-33.1	17,325	-1.8
19	플라스틱 직물류(5903)	16,576	24.5	17,232	4.0
20	조제 육류(1602)	5,360	-	16,222	202.7

(품목분류 : HS Code 4단위)

(자료원 : KOTIS)

대리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US\$천, %)

품 목 명		2002		200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No.	총 계	2,217,604	14.9	2,521,780	13.7
1	광물성 연료	762,107	21.3	652,080	-14.4
2	철강제품	529,519	18.5	626,116	18.2
3	비철금속제품	327,799	-3.8	505,271	54.1
4	수산물	215,862	40.4	299,252	38.6
5	임산물	109,836	6.4	111,769	1.8
6	석유화학제품	62,641	-23.4	70,654	12.8
7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58,659	13.5	64,024	9.2
8	무기류	4,020	198.5	39,819	890.5
9	농산물	9,988	65.8	27,601	176.3
10	수송기계	8,555	-55.2	26,333	207.8
11	비료	23,708	-16.4	23,799	0.4
12	섬유사	14,268	-20.9	10,478	-26.6
13	산업기계	2,164	25.5	10,000	362.1
14	산업용 전자제품	6,236	35.3	8,435	35.3
15	금속광물	36,902	496.8	6,581	-82.2
16	축산물	8,881	44.4	6,508	-26.7
17	정밀화학제품	15,858	25.2	5,753	-63.7
18	전자부품	5,328	45.3	4,775	-10.4
19	기타화학공업제품	469	410.4	3,278	598.6
20	중전기	937	-10.8	3,198	241.2

(품목분류 : MTI 2단위)

(자료원 : KOTIS)

대리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US\$천, %)

품 목 명(HS Code)		2002		200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No.	총 계	2,217,604	14.9	2,521,780	13.7
1	알루미늄의 피(7601)	272,106	-5.9	322,072	18.4
2	석유,역청유(원유)(2709)	478,926	4.0	297,842	-37.8
3	냉동어류(0303)	168,340	21.8	245,598	45.9
4	철 스크랩(7204)	142,490	-2.5	181,149	27.1
5	석유(원유제외)(2710)	86,351	11.6	155,814	80.4
6	철 평판압연제품(7208)	159,579	44.0	152,005	-4.7
7	선철(7201)	59,061	53.6	141,176	139.0
8	석탄,연탄 등(2701)	91,959	38.8	111,564	21.3
9	철 반제품(7207)	78,890	25.0	103,888	31.7
10	원목(4403)	100,285	2.2	103,507	3.2
11	니켈의 피(7502)	10,172	-43.4	88,484	769.9
12	방사성원소(2844)	104,872	328.8	86,887	-17.1
13	니켈 중간제품(7501)	29,389	47.7	78,716	167.8
14	화학목재펄프(4703)	55,107	10.3	61,150	11.0
15	갑각류(0306)	41,901	339.1	46,900	11.9
16	폭탄 등 군수품(9306)	2,679	451.1	37,758	1,310.5
17	질소해테로고리(2933)	28,176	-29.5	36,067	28.0
18	합성고무혼합물(4002)	26,451	-19.3	28,602	8.1
19	페로알로이(7202)	33,422	16.8	21,590	-35.4
20	철,비합금강 봉(7213)	41,738	2.9	16,476	-60.5

(품목분류 : HS Code 4단위)

(자료원 : KOTIS)

- ☐ 투자규모 : 2003년 11월말 순투자 기준 124건 1.8억 달러(우리나라 전체 외국투자의 0.5%에 불과)

2. 국내기업의 러시아 수출확대 방안

- ☐ 유럽형으로 승부
 - 유럽식 디자인 채용
 - 유럽식 상표명
- ☐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 유통시장 급변중
 - 대형 유통업체 시장 급성장
- ☐ 고급품, 최신품으로 승부
 - 중저가 제품은 중국, 터키 등에서 대량 유입
 - 고급품 수요 막대
- ☐ 파트너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처음부터 Sole Agentship은 금물
 - 현지 관행을 잘 아는 경험 많은 파트너를 골라야
- ☐ 거래조건을 분명히
 - D/A 거래는 되도록 사양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에 투자진출을 서둘러야 함>

- 1억 5천만명의 내수 규모 : 구매력 급성장
- 1억 3천만명의 주변 CIS국가 내수 규모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수출을 위한 가공기지

■ 모스크바 지상사 협의회 회원사 현황

No.	업 체 명	대표자	직 위	전 화	팩 스	비 고
1	고합(KP케미칼)	유영대	부 장	967-0905	967-0907	
2	그린로지스틱스	정낙원	대 리	945-2627	945-2421	
3	대우인터내셔널	우병규	상 무	234-9242	234-9249	운영위원
4	대우전자	최승철 김택현	지사장 과 장	745-2020	745-2021	
5	대한항공	노명철	지점장	725-2727	725-2728	회 장
6	동양제과	이태수	부 장	258-2483	258-2480	
7	롯데상사	양근식	지사장	258-1318	258-1176	
8	롯데건설	김대현	이 사	775-2701	775-2700	
9	삼성전자	장창덕 박내성 최희중	전 무 상 무 차 장	797-1300 797-2451 797-2303	797-2326 797-2326	고 문 운영위원
10	삼성물산(건설)	강호봉	이 사	797-2563	797-2560	
11	SK 글로벌	박 헌	지사장	258-1510	258-1523	
12	LG 상사	양재일	상 무	258-1368	258-1867	고 문
13	LG 전자	박정환	차 장	933-6501	933-6560	
14	UNI-PASS	유상록	사 장	334-1944	334-1966	
15	우리은행	정동식	소 장	783-9787	783-9788	
16	우진 트랜스	박연섭	지점장	775-4481	954-2099	
17	에코비스	강완구	차 장	258-4124	955-9141	
18	진로루스푸드	현명철	대표이사	275-4392	275-1603	
19	U-PHOTOS	유시웅	사 장	721-2361	721-2363	운영위원
20	카스	김중호	법인장	784-7704	784-7747	
21	포스틸	조성배	과 장	956-5407	956-5409	
22	한국관광공사	김홍준	지사장	230-6240	230-6246	
23	한국야쿠르트	윤길중	이 사	960-2223	956-2289	운영위원
24	현대상선	이동훈	부 장	258-1190	258-1193	
25	효성	김천덕	지사장	956-5142	956-5072	감 사
26	한국수출입은행	신동표 서석현	지점장 차 장	258-2366	258-2368	
27	한국수출보험공사	김기래	과 장	258-1654	258-1655	
28	KOTRA	이광희 송상목	본부장 과장	258-1627	258-1634	사무국

■ 모스크바 중소기업 협의회 회원사 현황

No.	회 사 명	대표자	전 화	팩 스	주요 취급품목	비 고
1	CAS	김중호	784-7704	784-7747	전자저울	자문위원
2	DUEK KEUM	유시영	363-5090	363-5091	직물	
3	EURO-MS	손정락	125-8598	125-8598	직물	부회장
4	KOTRA	이광희	258-1627	258-1634		상임고문
5	LANIX	황부용	198-8182	943-0292	시계, 잡화, 직물	회장
6	LIME HOUSE	김동관	157-1476	157-5121	면도기, 포장지	자문위원
7	U-PHOTO	유시용	721-2361	721-2363	앨범제조	
8	ROYAKS	최효율	230-6981	730-4488	녹음기, 카메라, 지문인식기	
9	SAMWON	최승산	126-7053	126-7053	전자부품 (TV 부품)	
10	SEWON INTER_KOREA	김승배	953-8760	951-7090	광학제품	
11	TST	김수철	729-4613	721-2307	서비스업 (여행업,A/S센터 ,컨설팅)	
12	OCEAN PASSUL	박상수	513-1511	513-1511	칠판조립	
13	BLAGO INTERNATIONAL	조철웅	234-9224	234-9258	화물통관	
14	KOREAN BIZ CENTER	강대권	721-2333	234-9423	OFFICE RENT	
15	WOOJIN	박연섭	775-4481	954-2099	화물운송, Forwarder	
16	기아산돌	안길환	777-4172	737-3065	자동차판매	
17	한국수출보험공사	김기래	258-1654	258-1655		
18	중소기업청	정윤모	953-0894	953-0894		
19	그린로지스틱스	정낙원	945-2627	945-2645	종합물류	총무